



대우건설, 발전사업 연계 스마트팜 실증사업 맞춘
 대우건설이 포천민자발전, 한국플랜트서비스와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연계형 융복합 스마트팜 실증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포천민자발전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설치한다. (오른쪽부터) 문원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장, 박영진 포천민자발전 대표, 이범혁 한국플랜트서비스 대표가 포즈를 취했다. /대우건설



현대ENG-석유공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기술제휴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석유공사와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기술제휴'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유석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영업사업부 전무(오른쪽)와 박현규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흥대 팝업행사 성료
 동아오츠카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흥대 스타스퀘어에서 진행한 '오로나민C 나이트 아웃(Night Out) 팝업 체험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모델 박세리가 팬사인회를 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현대백화점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NFT 변환 전시

현대백화점은 문화예술 메타버스 플랫폼 '쿤트라'에서 최근 진행한 '현대백화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16점을 NFT로 변환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전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고객은 '쿤트라' 앱(App) 다운로드 후 메타버스 '모카가든'을 방문하면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운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국가보훈처 ◇국장급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이주 ◇과장급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장 김찬규

부음
 ▲김낙권씨 별세, 김달호(TV조선 기자)씨 부친상 = 31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월 2일 오전 8시, 054-683-4447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조용규 변호사의 자산상속 제대LAW

상속 설계는 경직돼 있는 상속제도를 당신과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설계를 하려면 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의 요청에 맞는 다양한 상속설계 내지 통합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 유언대용신탁을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심지어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한다. 신탁회사

는 전문인력이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 온 조리도구와 카메라, 공들여 만든 사진 블로그, 매일 같이 가족 사진을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당신은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신탁법은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영미권에서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탁을 설정한다. 우리보다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iving Trus

t가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마이클잭슨 역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했다. 상당한 자산가인 마이클잭슨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을 만큼, 영미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안정적인 전형적인 상속 방법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려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때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언대용신탁의 모습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고 수익자를 정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다. 즉 신탁하려는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

관하면서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위탁자(동시에 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된 재산을 수익자에게 급부할 사람(사후수탁자)이 필요하므로 사후수탁자를 미리 정해 둔다. 사후수탁자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마이클잭슨은 신뢰하는 친구들을 사후수탁자로 정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당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당신이 먼 곳으로 갈 때까지 신탁선언문을 공증하는 비용 등 적은 금액의 행정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 고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후수탁자가 돼 당신이 희망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해 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처리를 희망한다면 신탁회사를 사후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신탁설정비용이나 보관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김학도,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만나 中소성장 논의

(중진공 이사장)

짐 로저스 "한국경제, 3고 대응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만나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28일 싱가포르에서 짐 로저스 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자리에서 로저스 회장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관료제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면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지난 28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짐 로저스 회장과 면담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진공

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았다.

아울러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면서 "K-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살려 인구 6억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된다면 한국 중소벤처기업에 무한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과 우리 중소벤처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조언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반려견 헌혈문화 조성 앞장선다

'아임 도그너' 캠페인 홍보 K리그 선수, 헌혈견과 입장

현대자동차가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7월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전북 현대 모터스와 제주 유나이티드 간의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헌혈견과 함께 입장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국내 프로축구 경기에서 선수단이 에스코트 키즈가 아닌 동물과 함께 입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혈견은 기부를 위해 헌혈을 한 경험이 있는 반려견을 일컫는다.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채혈만을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과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은 몸무게 25kg 이상, 2~8세 사이, 전염성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어야 헌혈이 가능하다. 동반 입장 이벤트는 공혈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을 장려하는 현대차의 '아임 도그너(I'M DOgNOR)'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DOgNOR는 개(Dog)와 헌혈 제공자(Donor)의 합성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반려견 전용 헌혈 차량을 운영하고 건국대학교와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반려견 헌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는 '아임도그너'의 심벌 캐릭터 '덕구(DOGKU)'의 10m 높이 공기조형물도 함께 등장해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덕구'는 실제 천안의 한 도살장에서 구출된 '설악이'라는 이름의 건국대학교 소속 헌혈견을 모티브로 탄생

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아임 도그너' 캠페인의 일환으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내 사우스 아트리움에서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 하는 토크쇼, 건국대학교 수의사들과 함께하는 반려견 클래스, 반려견 성격유형검사 '명BTT', 반려견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견생네컷'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임 도그너 캠페인으로 반려견 헌혈에 대한 반려인들의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